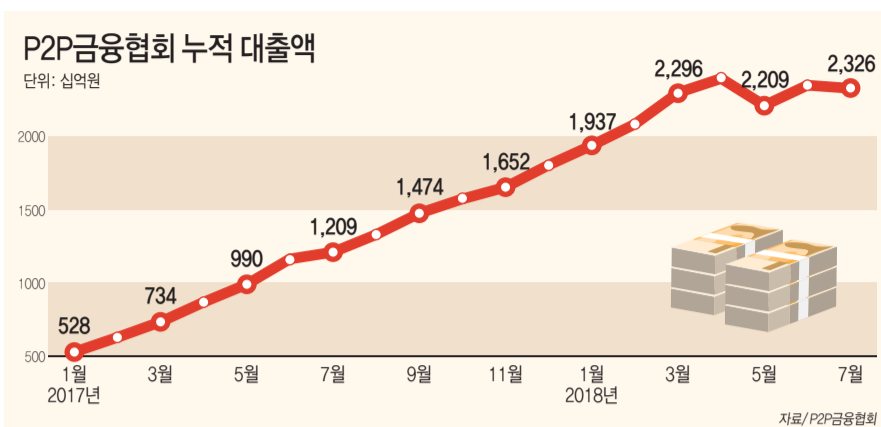


P2P업체 연체율 전년비 8배 ↑... 투자위험 주의보

대출액 2.3兆·연체율 4.38%
 모호한 기준으로 위험성 지적
 연체·부실률 공시 의무화 필요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과 제2금융권의 높은 이자 부담 사이를 파고 들며 '대안 금융'으로 기대를 모았던 P2P(개인 간 거래) 금융 연체율이 크게 치솟고 있다. 그만큼 투자위험이 커졌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연체와 부실률 공시가 제각각인 데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자신이 처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할 수 있어 연체·부실률을 공개·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한국 P2P금융협회 회원사 대출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액은 2조3256억원으로 지난해(1조209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4.38%로 지난 4월 말(1.77%)보다 3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54%)과 비교해도 8배 이상 오른 수치다.

P2P업체 관계자는 "상품관리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업체의 경우 점점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꾸준히 공시 현황을 확인하고 투자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를 위

해 P2P업체 모두 연체·부실률을 공개·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P2P 시장 전체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한 눈속임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P2P업체 162곳 가운데 P2P금융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60곳(7월 기준)이다.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60개 업체를 제외한 102개 업체의 경우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율과 부실률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월 말 기준으로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현재'나 '이달 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연체·부실률을 공시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투자자는 위험성을 확인하지 못한채 감감히 투

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P2P업체 일각에서도 추락한 P2P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연체 부실률을 공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2P업체 관계자는 "사기 횡령사건이 불거진 P2P업체의 경우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P2P금융협회 회원사가 되면 정기적으로 연체 부실률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P2P금융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시가 의무화돼야 업체들의 사기 횡령 등이 사라지고 투자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보고 투자할 수 있다"며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전체 P2P업체 정보가 공개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손태승 우리은행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3일 '우리희망투게더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에서 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캄보디아에 글로벌 봉사단 40명 파견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전국 영업점에서 선발한 우수직원 40명으로 구성된 '우리희망투게더 글로벌 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오는 7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글로벌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글로벌 봉사단은 앞으로 4박 5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시쪽에 위치한 캄풍수프 지역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학교건물 도색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교육환경 개선을 도울 예정이다.

현지 학생들과 미술활동과 체육활동을 함께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정서교류의

시간도 갖고 케이팝(K-POP) 공연을 펼치며 문화교류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없는 학교에 축구장 시설을 겸비한 운동장 건립비용을 기부할 예정이다.

출발 전 발대식에서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캄보디아에 한국을 더욱 알리고 양국간의 우호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은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글로벌 사랑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EB하나은행

취약계층 가처분소득 늘리기 지원

KEB하나은행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온바,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상환 차주에 대

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천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kmh@

농협 등 상호금융, 상반기 순익 48% 급증

이자이익 증가·유가증권 투자 전환
 연체율 0.08%p ↑ 자산건전성 악화

올해 상반기 신탁 등 상호금융조합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지만 연체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224개 상호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80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신용사업부문의 순이익이 2조4382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다. 여신규모 확대로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유가증권 관련 손익도 흑자로 전환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4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4%

(상호금융조합 상반기 순익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구분	2017년 상반기 기준			2018년 상반기 기준			증감(률)		
	신용	경제	합계	신용	경제	합계	신용	경제	합계
신탁	1,067	36	1,103	2,463	51	2,514	1,396	15	1,411 (127.9)
농협	17,285	△7,095	10,190	21,007	△6,256	14,751	3,722	839	4,561 (44.8)
수협	791	△20	771	907	△254	653	116	△234	△118 (△15.3)
산림	△90	222	132	5	129	134	95	△93	2 (1.5)
합계	19,053	△6,857	12,96	24,382	△6,330	18,052	5,329	527	5,856 (48.0)

증가했다. 조합당 평균자산은 2176억원이다.

총여신은 334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4% 늘었다.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는 전년 동기 6% 대비 둔화됐다.

총수신은 415조원으로 정기예금을 중심으로 전년 말 대비 3.6% 증가했다.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기 말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하여신비율 역시 전년 동기 말 대비 0.17%포인트 높은 1.64%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금융지원 방안 모색

NH농협은행은 지난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운대 기업투자금융부서 부행장이 수도권 공단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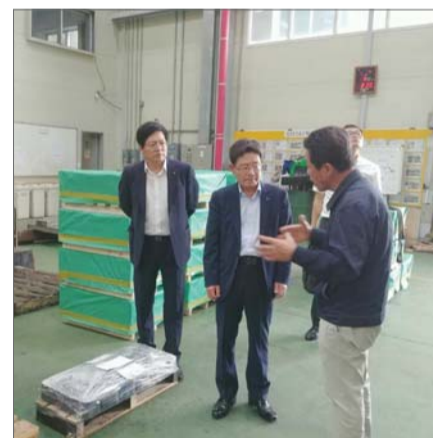
유 부행장은 인천남동공업단지에 위치한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서울경금속과 시화공업단지 소재의 철강재 절단·가공업체인 동진엠아이에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유 부행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기업의 고충을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월 10일까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신규 및 만기 연장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0.1%포인트의 우대금리와 함께 총 4조 원 한도의 명절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안상미 기자



지난 3일 유운대 NH농협은행 부행장(왼쪽 두 번째)이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동진엠아이 기업을 찾아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신한은행 '쏠과 함께 쏠인원' 경품 이벤트

신한은행은 제34회 신한동해오픈의 입장권을 모바일로 발급하고 이번 대회를 기념해 신한 쏠(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신한 쏠(SOL)과 함께 쏠인원' 이벤트를 시행한다.

먼저 이벤트 내용을 SNS를 통해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신한 쏠(SOL)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제34회 신한동해오픈 모바일 입장권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XGOLF 주말 라운딩 이용권 ▲골프존 이용권(5만원) ▲스릭스 골프 모자 등 경품을 제공한다. SNS 공유 및 추천받은 지인의 신한 쏠(SOL)에 신규 가입 횟수에 따라 응모한 경품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한동해오픈 입장권을 신한 쏠(SOL)을 통해 모바일로 발급한다. 대회 당일 종이 티켓을 지참할 필요



없이 신한 쏠(SOL) 쿠폰박스에 발급된 모바일 티켓을 제시 후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전에도 기여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